"교육청 추경, 현장 목소리 반영 안돼"

도의회 교육위, "끼워맞추기식에 불과… 예산에 대한 공정 · 투명성 결여"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는 14일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끼워맞추기식 예산"이라면서 "현장 목소리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적절한 예산을 담지 못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김희수(전주6) 의원은 "도교육청 운영경비가 필요하기보다는 살을 붙이는 예산 편성"이라면서 "특히, 청사 비품뿐만 아니라 해외연수가 추경에 포함될 만큼 중요한 사안인지 의문"이라면서 예산안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또, "도교육청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학교공간혁신사업은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총체적인 추경예산안 부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훈열(부안) 의원은 "도내 일선학교가 폐교된다면 지원금이 발생된다"면서 "실질적으로 학부모와 지역민 등이 충분한 논의를 했는지에 대해 의문스러워 도교육청의 행정이 일방통행이 아닌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종식(군산2) 의원은 학교신설 사업에 대해 "차질없이 진행되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철저한 진행이 요구된다"고 말했으며, 또 지방채 상환에 대해 "채무없는 교육재정 노력은 인정하지만, 도내 교육 현안사업이 미뤄지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다"며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박희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감사사례집' 예산은 유사사례 발생의 사전예방을 통해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책자 발간 예산으로 학교현장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사례보다 좋은 사례를 담은 책자를 제작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명지(전주8) 의원은 "학교신설시 수요 예측을 잘못해 여유공간 발생과 시설이 태부족하다"면서 "특히, 유휴시설을 대체해 증축함으로써 학교의 기형적인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앞으로는 정확한 수요 예측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형석(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도교육청 시설 증축 등에 있어 예산의 시급함을 따져 편성해야 할 것"이라면서 "또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투입되는 예산 비중에 차별이 없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최영규 위원장은 "특별교부금의 단가와 자체사업비 단가가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예산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단가계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과 지자체의 소통을 강화해 비법정이전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위은 이번 전북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유아교육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 37억 ▲학교 급식기구와 시설확충 그리고 실내 체육시설 조성, 공기정화장치 보급, 학생안전체험 및 수련시설 확충 등 학생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 682억이다.

이와 함께, ▲무장애 통합놀이 공간 구축과 학교운동부 훈련 여건 개선, 예술교과실 및 보건실 현대화, 특성화고 환경 개선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193억 ▲인건비 217억 ▲학교 신설과 시설안전 및 노후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과 학교 · 교육행정기관 시설 1,303억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교육채 상환 1,467억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세계문화유산 등재 환영"

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 정읍 무성서원 관련

"정읍방문의 해에 세계적으로 알리는 뜻 깊은 선물"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정읍 · 고창)는 정읍 무성서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확실시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14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사전 심사하는 세계유산위원회(WHC) 자문기구인 이코모스(ICOMOS ·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이날한국의 서원에 대해 '세계유산 등재 권고 평가 결과보고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의 서원은 이변이 없는 한 6월 30일부터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열리는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국의 서원은 전북 정읍 무성서원을 비롯해 소수서원(경북 영주), 도산서원(경북 안동), 병산서원(경북 안동), 옥산서원(경북 경주), 도동서원(대구 달성), 남계서원(경남 함양), 필암서원(전남 장성), 돈암서원(충남 논산) 등 우리나라 6개 시 · 도 총 9개 서원으로 구성된다.

이코모스는 평가결과 보고서에서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대표 사립교육 시설로 성리학을 조선사회에 정착 형성한 산실로 중국의 성리학이 서원에서 중국, 일본과 다른 모습으로 발전하게 된 점, ▲성리학이 지향하는 자연관과 한국의 문화적 전통이 반영된 교육 유산의 특출한 전형을 보여준다는 점, ▲건축과 주변경관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점 등을 들어 세계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했다.

1968년에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무성서원은 1696년 향촌민에게 흥학목적으로 세워졌으며, 예(禮)와 악(樂)으로 백성을 교화한 대표적인 서원으로서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았다.

유 원내대표는 "올해가 정읍 방문의 해인데 무성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예정이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무성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최종 확정되어 정읍을 방문하신 모든 분들께서도 우리 정읍에서 세계문화유산을 살펴보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아름답고 역사적 장소가 많은 고장인 정읍이 널리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정읍 무성서원은 고창 고인돌(2000년), 백제역사유적지구(2015년)에 이어 전북의 세 번째 세계문화유산이 된다.

/김진성 기자

"전국장애학생체전 성공 개최 응원합니다"

도의회 문건위, 익산 체전 개막식 참석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는 14일 익산에서 개최되는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선수들을 응원했다.

위원들은 이날 환영공연은 물론 선수단 입장과 선수 및 심판 대표 선서 시간, 그리고 축하공연과 각종 미디어 퍼포먼스를 관람했다.

정호윤 위원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그 동안 선수단이 흘린 땀방울이 소중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며 "대회가 마무리 되는 그 순간까지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심 및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오는 17일까지 익산과 전주 등 도내 각 지역에서 개최되며, 16개 종목(육성5, 보급10, 전시1) 3,607명(선수 1,885명, 임원 및 관계자 1,722명)이 참가해 자웅을 겨룬다.

전북 선수단은 총 50개 이상의 메달 획득(금메달 18개, 은메달 17개, 동메달 15개 이상)을 목표로 13개 종목, 174명(선수 119명, 임원 및 관계자 55명)이 참가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북 전주시의회 김진옥(송천1 · 2동)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8명의 덕진지역구 시의원들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과 정치인들은 환경 쓰레기를 양산하는 불법 현수막 정치를 그만두라"면서 정동영 의원을 몰아세웠다.

"불법 현수막 정치 그만두라"

민주당 전주병 지역위 전주시의원들 촉구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병지역위원회 시의원들이 사실상 민주평화당 정동영 국회의원을 향해 '불법 현수막 정치를 그만두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전주시의회 김진옥(송천1 · 2동) 의원 등 전주 덕진구를 지역구로 둔 8명의 민주당 시의원들은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과 정치인들은 환경 쓰레기를 양산하는 불법 현수막 정치를 그만두라"면서 정동영 의원을 몰아세웠다.

이들은 "지난 2주 동안 전주 덕진지역 곳곳을 돌아다녔다"면서 "가장 많은 불법현수막은 분양광고 현수막과 함께 (정동영)국회의원 현수막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법(제37조 제2항)에는 주요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이는 (현수막이)지정된 게시대에 신청하고 허가를 얻었을 때이며,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국회의원 본인이 직접 발로 뛰어 얻어낸 실적을 홍보해야지 시청 공무원들이 얻어낸 소중한 성과를 자신이 한 것인 양 자랑하고 있다"면서 "숟가락 하나 얹는다고 내가 차린 밥상이 될 수는 없다"고 비난했다.

또 "시는 형평성에 맞게 불법 현수막의 강제철거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당과 정치인들은 환경쓰레기를 양산하는 불법 현수막 정치를 그만두고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소중한 정치자금과 후원금으로 개인의 치적을 홍보하거나 열심히 발로 뛴 공무원들의 성과를 가로채는 짓을 당장 그만두라"고 밝혔다.

/뉴시스

전북 농어업유산 체계적 보전관리 근거 마련

강용구 도의원, 지원 조례안 발의

도내 농어업유산을 적극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보전 ·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의원(남원2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제363회 임시회 기간에 '전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가농어업유산은 농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 · 사회 · 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 · 무형의 농어업자원 중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어업자원을 말한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전라북도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 ·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농어업유산 분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농어업유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농어업유산 보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국가 또는 세계 중요 농어업유산 등재 추진 및 농어업유산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63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